

곡성 강빛마을에 정착한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

“인생 2막 기부로 열었습니다”

1999년 ‘웃 로비 의혹사건’ 흥역에 의류사업 정리

13일부터 자선바자회 수의금 獨장학재단에 기부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웃 로비 의혹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던 양장점 라스포사 주인 정일순(여·70)씨가 서울에서 해오던 의류사업을 정리하고 곡성에 정착한다.

그는 의상 디자인(연주복·웨딩드레스·에복 등) 업계에서 고인이 된 양드레 김과 실력을 겨룰 정도로 이름을 떨쳤다. 정씨는 13일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에 조성된 은퇴자 마을인 ‘강빛 마을’로 이사한다.

강빛 마을의 산파 역할을 한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움을 받아 끌어온 정일순은 그는 이곳에서 ‘인생 2막’을 열 계획이다. 정씨에게 그간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1999년 5월 불거진 웃 로비 의혹사건으로 큰 흥역을 치렀다. 웃 로비 의혹사건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아래가 외회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아내로부터 2500만 원짜리 링크코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강 시장 13일까지 UEA 정상회의 참석 美서 명예문학박사학위



이다.
독일유학 장학재단은 김 전 장관이 추진 중인 ‘순천 독일 한 옥 마을’ 조성 사업 중 하나

다. 김 전 장관은 순천시 옥천동 자신 소유의 부지(면적 24만8000㎡)에 과파(派鶴) 광산근로자 및 간호사 출신 교민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사찰을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결국, 남은 것은 서울에 있는 라스포사 매장 2곳과 악화된 건강 뿐이었다.

서울 매장을 팔들이 운영 중이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면식이 있던 김 전 장관의 소개로 ‘강빛 마을’을 알게 되면서 서울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곳에서 봉사도 하면서 주문제작 방식의 의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이 일환으로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강빛 마을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40년간 모아온 고가구·그림·조각상 등 400점과 자신이 직접 만든 웃 1000벌을 70~80%의 가격에 판매 수익금 전액을 독일 유학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것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잘못”

시민대책위·영세상인·정치권 강력 반발

광주고법 항소심

논란 끝발 내려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시민사회 및 영세상인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1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마트의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

준에 위반됐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며 “이런 점만으로는 건축주의 사실은 폐 등 거짓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마트가 변경허가신청을 통해 당초 건축허가상의 하자를 대부분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건축허가취소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건축허가취소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별도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설 등록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당시 건축허가 관련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북구 입장에서도 반

려한 것이 미망하다는 것이다.

다면 건축허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거부할 이유도 사라지게 돼 이번 판결에서는 사실상 이마트가 전부 승소한 효력을 갖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시민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상인의 입장에서 헌법 제119조(경제민주화)의 정신을 좀 더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

혔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시 갑사에서 위법성이 밝혀진 건축허가에 대해 1심 판결까지만 뒤집으면서 사회적 요구를 거슬렸다”며 “지역민과 함께 이마트 입점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공익보다 사익 재산권 침해가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면 독과점 방지법 등은 왜 존재하느냐”며 “이런 판결을 보면 국가도가 중소상공인들의 편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광주시는 11일 “강운태 시장이 오는 13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2013 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25개국 180여개 도시의 시장과 대표단 50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강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인카네이트대학(UIW)에서 루이스 아그네스 총장으로부터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UIW는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폴리카프 쿠쉬 등 지역사회와 UIW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 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10일 인카네이트대학(UIW)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은 뒤 루이스 아그네스 UIW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LED업체 (주)프로맥엘이디

광주시 ‘MIG 2호 기업’ 선정



특히 이 번에 브랜드 사용 승인이 난 제품은 (주)프로맥엘이디의 주력 수출 제품인 LED 가로등(140W), LED 보안등(50W), LED 투광등(150W) 등 3가지다.

광주시는 “LED(발광다이오드) 공동브랜드인 ‘MIG 2호기업’으로 (주)프로맥엘이디(대표 정선태·선태·선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IG는 Made In Gwangju의 약자로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 어진 광주시 공동브랜드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주)프로맥 엘이디는 LED 부품과 LED 조명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문업체로, 녹색기술인증,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및 국내외 특허 8건 등을 취득하는 등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회사로 알려져왔다.



을 점검 할 계획이다. 또 영암군으로 이동해 무주택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달뜨는 집’,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영목육장’을 찾아 영암군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영목육장’을 찾아 영암군 주민의 주거 및 복지 실태를 살펴본다. /오광룡기자 kroh@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3 동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지하상가 L동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까지 열린다.

</